

한일전 치르는 벤투호, '매일 검사·각자 식사' 등 방역 철저



80번째 한일전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는 축구대표팀이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통해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 원정에서 다수 감염자가 발생한 불상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축구협회 의무분과위원회가 오는 25일 일본과의 평가전에 나서는 대표팀 선수단이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21일 발표했다.

협회 의무위원회와 국가대표 운영팀이 발간한 방역지침서를 토대로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 개최지 일본의 최근 방역 지침을 참고해 만들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2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26일 귀국한다. 우선 출국에 앞서 72시간 이내 선수단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대한축구협회 의무분과위원회, 코로나19 방역 수칙 발표 오늘 출국해 오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80번째 한일전

하고, 음성 확인서를 지참한다. 모두에게 얼굴 보호 투명 플라스틱 방진복, 마스크를 지급할 계획이다. 비행기에서 일반 여행객의 좌석과 분리해 앉는다. 일본에 도착한 직후에는 신속하게 항원(Antigen)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호텔로 이동한다. 23일부터 귀국하는 26일까지 매일 오전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팀 닥터의 필요에 따라 추가 실시도 가능하다. 검사 결과를 보고 해당일 훈련 및 경기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발열, 기침, 독감과 같은 증상이 있거나, 특이 증상을 보이는 경우 팀 닥터의 진단

이후 일본축구협회가 지정한 공간으로 즉시 격리 조치된다. 일본 방역당국과 외부 병원으로 의뢰해 추가 관리할 계획을 세웠다. 현지에서 이동하거나 모일 때에도 철저한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호텔, 훈련장, 경기장 외 출입은 엄격히 제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팀 닥터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모든 개별 또는 단체 미팅시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개별 미팅은 4인 이내로 제한한다. 또 전체 미팅은 개방 공간에서만 가능하다. 사전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호텔에서선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선수들의 생

활공간인 숙소, 식당, 회의실, 치료실, 장비실 등은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하고 허가받은 호텔 직원만 출입이 가능하다. 호텔은 1인 1실로 운영된다. 객실 환기는 1일 두 차례 이상 해야 한다. 시사는 입국 당일 및 1일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각자 방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이후에는 매 식사 전 체온 측정 후에 식당에서 마주보지 않고 한다. 식료품 배달 주문은 사전 안전 확인 후 가능하고, 호텔 내 치료실에 2인 이상 출입 금지 및 긴 바지 착용을 주문했다. 호텔 내 공용 샤워실, 사우나, 헬스장, 수영장은 사용 금지다. 훈련장은 대표팀이 독점으로 사용

한다. 팀 버스는 2대를 운영해 선수와 스태프가 최대한 멀리 하도록 했다. 버스 안에선 창문 쪽 좌석에만 착석 가능하다. 자가용 이동시 탑승 인원은 4인 이내로 제한한다. 이밖에 식사 시간, 훈련 시간, 경기 시간을 제외한 모든 공용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모두에게 일회용 장갑, 체온감지용 손목밴드, 휴대용 손소독제, 쓰레기 폐기를 위한 개인 비닐팩지, 개인 물병을 제공할 계획이다. 귀국하면 K리그 소속 선수들은 곧바로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로 이동해 일주일 동안 격리된 상태에서 컨디션을 조절할 예정이다. 협회는 "새롭게 정한 수칙을 선수단이 철저히 준수하면서 팀 닥터로 동행하는 내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20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세이코 위원장은 마루카와 다마오 일본 정부 올림픽담당장, 고이케 유리코 도쿄 지사,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앤드루 파슨스 IPC 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악화 우려에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쿄올림픽 해외 관중 불허 “해외티켓 63만장 환불기로”

코로나19 확산 지속 영향...“안전·안심 대회” 실현

오는 7월로 예정된 일본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때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 대회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이날 오후 5시 화상 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

◆코로나19·변이 악화 우려...“안전한 대회 위한 것”

회의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하시모토 세이코 대회 조직위원장과 마루카와 다마오 일본 정부 올림픽담당장, 고이케 유리코 도쿄지사,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앤드루 파슨스 IPC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 영향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일본 측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입국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IOC와 IPC는 이를 존중해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NHK는 전했다.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것이다. 하시모토 위원장은 “정말 유감”이라면서 “모든 참가자와 일본 국민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마루카와 담당장도 기자회견에서 “하시모토 위원장과 고이케 지사가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고려해 (해외 관중을) 포기한다고 보고했고 IOC와 IPC는 일본 측의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해외티켓 63만장 환불...수익 악화 우려

이에 따라 해외에 판매된 티켓 63만장은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하시모토 위원장은 “해외에 판매된 티켓은 환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NHK는 “이미 해외에 판매된 티켓은 올림픽 60만장, 패럴림픽 3만장”이라고 전했다.

조직위는 티켓 판매 수익을 900억 엔(약 93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해외 관중 티켓 판매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너육이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재계약 등 추가 비용과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경비는 1조6440억엔(약 17조원)까지 불어나 있다. 조직위 수입이 부족해 도쿄도가 1500억엔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NHK는 지적했다.

◆일본 관중 상한 내달 결론...50% 제한 등 검토

일본 관중 상한선은 다음 달 결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 조직위는 무관중, 50% 제한 없음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루카와 담당장은 “국내 관중 상한선은 국내외 확산 상황과 국내 스포츠 개최 상황을 감안하면서 다음달 중 기본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 조직위는 지난해 11월 관중 상한 및 해외 관중 허용 여부에 대해 올해 봄까지 판단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3일 첫 화상 회의에서 해외 관중 수용 여부를 이달 중, 일본 관중 상한선을 다음달 중 결정하기로 했다.

감독의 기대대로...후배들에 경험 전파하는 추신수



김원형(49) SSG 랜더스 감독은 팀이 ‘추추 트레인’ 추신수(39)를 영입했을 때, 타선 강화 뿐 아니라 그의 ‘경험 전파’에도 기대를 걸었다. SSG가 추신수를 영입했을 당시 김 감독은 “메이저리그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추신수가 기존 선수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극제도 될 것”이라며 “(1982년생)동갑내기인 추신수와 김강민이 팀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신수가 선수단에 처음 합류한 11일에도 김 감독은 같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추신수가 격리 생활 동안 오후 11시에 취침해 오전 6시에 기상하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한다. 매

일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부분이 선수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시즌을 치르면서 추신수의 생활 자체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팀에 합류한지 열흘 남짓 지난 가운데 추신수는 김 감독의 이런 기대에 한껏 부응하고 있다. 특히 자신을 어려워할 수도 있는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라고 하고 있다. 추신수는 2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예정이던 NC 다이노스와의 시범경기가 취소돼 KBO리그 비공식 데뷔전이 미뤄진 뒤 “한국은 선 후배 문화가 엄격한 편이다. 선수들이 말을 거는 것도 어려워할 수 있어 먼저 다가가려 한다”며 “선수들

이 결혼은 했는지, 가족관계는 어떤지부터 알아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른 팀 투수에 대해서는 팀 동료들에게 ‘배우는’ 입장이지만, 타석에 임할 때 자세나 생각 등은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조언하고 있다. 추신수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다. 그런데 다 착하고 그러다보니까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다”며 “일어

김 감독이 추신수의 2번 기용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추신수와 테이볼세터블 이를 가능성이 높은 외야수 최지훈은 “타격 쪽에서 배울 것이 많다”며 “추신수 선배는 메이저리그에서 1번 타자로 많이 나가셨다. 타석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나 상대 투수를 상대하는 법 등에 대해 조언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최지훈은 “특히 야구를 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승부욕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고, 이마저도 경험이 된다고 해주셨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선배님이셔서 다가

추신수 “굳이 일어나지 않은 일 생각하지 말라 조언” 최지훈 “거리감 느껴지지 않아...타격 조언 큰 도움”

나지 않은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서 조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생각해서 자기 자신의 기분을 다운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해준다. 아무리 잘 치는 타자라도 10번 중 7번은 아웃된다. 일이 일어나면 그때 생각하면 된다”며 “나도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런 생각을 이야기해준다”고 전했다. 추신수가 소개한 부분은 일부다. 그는 이를 비롯해 여러 조언을 후배들에게 틈틈이 전파하고 있다. 메이저리그에서 16년을 뛰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추신수의 조언이기에, 후배들의 마음 속에 와닿는다. 뉴스

가기 힘들 줄 알았다. 하지만 먼저 인사하면서 더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잘해주신다.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내야수 최주환은 “선배가 너무 무척같이 있으면 힘드는데, (추)신수 형은 그런 것 없이 편하게 대해주신다. 팀원으로서 야구적인 부분을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좋다”며 “저뿐 아니라 어린 친구들이 먼저 다가가는 조언을 나누는 것 자체가 신수 형의 장점이다. 같은 팀원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주신다”고 강조했다. 뉴스

살아난 흥국생명, 봄 배구 첫 판 승리 플레이오프 1차전 IBK기업은행 3-1 제압...김연경 29점

단기전은 확실히 다른 무대였다. 정규리그 막판 부진을 면치 못하던 흥국생명이 봄 배구 첫 판을 승리로 장식했다. 흥국생명은 20일 인천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IBK기업은행을 세트스코어 3-1(25-20 23-25 25-18 25-21)로 제압했다.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학교 폭력 논란으로 빠진 후 정규리그 막판 8경기에서 2승6패로 부진한 흥국생명은 힘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플레이오프 첫 경기를 잡고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여자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의 챔피언결정전 진출 확률은 100%다. 원년인 2005시즌부터 2018-2019시즌까지 총 15번의 플레이오프에서 한 번의 승이 없었다. 김연경은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29

점을 기록했다. 공격 성공률 60%의 엄청난 활약이었다. 브루나가 19점(공격 성공률 28.57%)을 지원했다. 5,6라운드에서 흥국생명을 세트스코어 3-0으로 완파했던 IBK기업은행은 상승세를 잇는데 실패했다. 1세트 초반 브루나가 블로킹으로 초반 분위기를 주도했다. 6-5에서 두 차례나 라자레바의 공격을 차단했다. 8-8에서도 라자레바의 후위 공격이 브루나에 막혔다. 라자레바가 살아나면서 팽팽한 양상을 띠던 1세트 승부는 중반 이후 흥국생명 쪽으로 기울었다. 15-15에서 김연경과 브루나가 나란히 1점씩을 보태 균형을 깨졌다. 반면 15-17에서 IBK기업은행 김희진이 시도한 속공은 라인을 벗어났다. 흥국생명은 24-20에서 브루나의 후위공격으로 세트를 끝냈다. 브루나는 1세트에서만 블로킹 3개 포함 8점을 가져갔다.

흥국생명의 좋은 흐름은 2세트 초반에도 지속됐다. 10-6에서 김채연이 서브 에이스를 터뜨렸고, 11-16에서는 이주아가 상대 리시브 불안함을 틈탄 2단 공격으로 6점차를 만들었다. IBK기업은행은 1세트와 마찬가지로 라자레바를 전면에 내세워 서서히 따라잡았다. 18-21에서는 브루나의 연이은 공격 범실에 턱까지 추격하더니 코트 끝에 살짝 걸치는 라자레바의 스파이크로 21-21 균형을 맞췄다. 내전 김에 IBK기업은행은 22-22에서 김희진의 직접 강타로 리드를 가져왔다. 24-23에서는 육서영의 과감한 강타로 2세트를 정리했다. 3세트에서 두 팀은 상대 리시브 불안함을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표승주와 김미연이 목적타 서브의 집중 타깃이 됐다. 두 선수가 크게 흔들리면서 세터들의 토스 역시 원활히 공격수들에게 도착하지 못했다. 중반 이후 흥국생명이 치고 나갔다. 16-16에서 김연경과 이주아의 3연속 득점으로 흥국생명이 승기를 잡았다. 김연경은 19-16에서 흘러나가는 토스에 오른손이 아닌 왼손 스파이크로 득점을 뽐



아내는 진기한 장면을 연출했다. 순식간에 4점차로 밀린 IBK기업은행은 표승주, 김수지, 라자레바가 모두 블로킹에 막히면서 고개를 숙였다. 흥국생명은 4세트에서 경기를 마무리했다. IBK기업은행의 잔심수를 놓치지 않고 착실히 점수를 추가했다. 22-19에서 브루나가 오픈 공격으로 췌기를 막았다. 두 팀은 22일 IBK기업은행의 홈구장인 화성실내체육관에서 2차전을 진행한다. 뉴스